

〈난학몽〉에 나타난 향촌 지식인의 욕망, 그 이중성

박은정*

|| 차례 ||

1. 머리말
2. 표방된 이념과 이면적 진실
 - 1) 현실적 세계와 이념
 - 2) 소설적 세계와 진실
3. 19세기 후반 향촌 지식인의 욕망, 그 이중성
4. 맺음말

【국문초록】

〈난학몽〉은 19세기 후반, 향촌 지식인인 정태운이 창작한 한문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표면에서는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19세기적 현실의 변이를 담아내고 있어 다분히 이중적인 텍스트이다. 욕망의 관점에서 이중성의 연원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첫 번째 욕망은 유가적 입신의 욕망이며 당위적 욕망이다. 이것은 이념의 수호, 정치적 관심, 가문의 창달, 한문 표기로 드러난다. 두 번째 욕망은 창작에 대한 욕망이며 선택적 욕망이다. 이것은 여성세계에 대한 탐색, 소설 작법에 대한 모색으로 시도되며, 여성 역할의 확대, 일상성의 강화, 독자에 대한 인식, 웃음을 통한 이념의 해체 등으로 드러난다. 이 두 가지 욕망은 단순히 양립하지 않으며, 작품 내부에서 충돌하고 갈등한다. 그러면서 두 욕망은 각각의 이면을 통해 모색과 한계를 드러낸다. 작가의 불우한 처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향촌 지식인의 의식, 소설에 대한 탐닉, 그리고 20대라는 청춘, 이것은 〈난학몽〉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난학몽〉은 작가의 내면에서 이들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난학몽〉은 19세기 후반, 격변하는 시대의 경험적 인식과, 공고함을 지키려는 관념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적 사고가 충돌하는 시기의 필연적 산물이다.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소재 및 문제의식을 차용하고 심화시키면서 <난학몽>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가족관계,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난학몽>의 작품세계는 이념에 대한 교조화로 재단될 수 없는 것이다.

주제어 : <난학몽>, 정태운, 향촌 지식인, 입신, 창작, 욕망, 이중성

1. 머리말

<난학몽(鸞鶴夢)>은 1871년 오현(梧軒) 정태운(鄭泰運)에 의해 창작된 한문장편소설이다. 국문 번역본의 필사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유일본으로 전해지다가, 청창권에 의해 정태운의 문집 『오현산고(梧軒散稿)』와 함께 한문본 원본이 발견되어, 『정태운 전집』 두 권으로 묶여 출간되었다. 국문 필사본에 번역자는 긍재(肯齋) 이민제(李敏濟)로 기록되어 있고 현전하는 국문본은 1908년 제3의 필사자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난학몽>은 고전소설사 말기의 작품이다. 그런 만큼 온전히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전대 가정 및 가문소설의 서사구조와 갈등양상을 수용하고 있으며, 주제적으로 이념 지향성이 강하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이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념의 이면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여 19세기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더불어 작가와 창작시기가 밝혀져 있고, 창작에 대한 작가의 변을 드러내는 서발문이 존재하며, 국문 필사본의 존재를 통해 20세기 초까지 읽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난학몽>은 고전소설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난학몽>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를 더

해가고 있다. 김기동¹⁾은 해제를 통해 <난학몽>을 소개하면서, 이 작품이 봉건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하게 결구해 놓은 가정소설이라고 하였다. 정종대²⁾와 김정미³⁾는 이 작품이 전대 가정소설의 유형적인 특징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구조를 분석하면서, 인물과 갈등의 특징, 현실 반영적 성격 등에 주목하고 있어 <난학몽> 연구의 토대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다. 김탁환⁴⁾, 김재용⁵⁾, 이승복⁶⁾은 사씨남정기계 소설, 계모형 또는 쟁충형 소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난학몽>을 함께 다루면서 중심 주제와 관련하여 <난학몽>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국문 필사본에 근거한 것인 데 비해 정창권⁷⁾은 <난학몽>의 한문본 원본을 발견하여 <난학몽> 이해의 깊이를 더하였다. 서지적 연구와 함께 한문본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강조했으며, <난학몽>의 가문소설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병직⁸⁾과 이기대⁹⁾, 조광국¹⁰⁾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의 범주에서 <난학몽>을 고찰함으로써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구도 속에서 <난학몽>의 의미를 밝혔다. 최근에 발표된 왕비연¹¹⁾의 논문에서는 한문본과 국문본의 대조를 통해 한문본의 의의를 재해석하고 여성과 현실주의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고찰하였다.

-
- 1) 김기동, 『古典小說 四題』, 『국어국문학』 54, 국어국문학회, 1974.
 - 2) 정종대, 「<난학몽>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75·7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1.
 - 3) 김정미, 「<난학몽> 연구」, 『이화어문논집』 12,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2.
 - 4) 김탁환, 「사씨남정기계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 5)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 6)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 7) 정창권,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 8) 이병직,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1.
 - 9)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10) 조광국,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 -<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 11) 王飛燕,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난학몽>의 개괄적인 성격과 주요 특징들이 밝혀졌다. 단순히 가정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 가문소설적 성격이 부각되고, 19세기 소설사의 맥락 속에서 <난학몽>의 의미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는 본고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유형화로 인해 작가 정태운과 <난학몽>의 차별적 특징이 다소 묻혀버리거나, 주제적으로 표면적 윤리성에 매몰되어 변화의 국면들이 보여주는 징후를 정치하게 해석해 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작가의 표면적 언술에 경도되어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난학몽>이 내밀하게 드러내고 있는 의미들을 간과하기 쉽다.¹²⁾ 균열의 틈새를 읽어내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특히 고전소설사 말기라는 전환기의 작품들을 대할 때 이러한 노력은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난학몽>은 ‘보수적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수와 이념에 묻혀버릴 수 없는 19세기적 ‘현실의 변이’를 담아내고 있어 다분히 이중적이며 문제적인 작품이다.¹³⁾ 본 논문의 목적은 욕망의 관점에서 그러한 이중성의 실상을 살피고, 나아가 그 연원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난학몽>의 소설사적 의의를 재고하는 것이다. 우선 <난학몽> 창작의 동력이 되는 상반된 두 가지 욕망이 작품 내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작가의 생애와 그가 남긴 서발문 등과 함께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12) 표명된 언급의 경계를 넘어서서 조선 후기의 문화적 상황을 함께 고려의 폭에 넣을 때 작자들마다 거듭 중요한 요목으로 설정한 윤리적 효용이라는 당의(糖衣)가 비로소 벗겨져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346면.

13) 선행연구들도 변화의 국면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수적 작가의식에 초점이 놓여 있다. 정창권(앞의 논문, 73면.)은 ‘이념에 대한 경직화와 교조화’로 보았고, 이병직(앞의 논문, 73면.)은 ‘명분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세계관을 지닌 작가가 자신의 이념을 충실하게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고는 보수적 이념과 현실적 변화의 노력을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함으로써 이중성의 관점에서 <난학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중적인 작품의 실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19세기 후반이라는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향촌 지식인으로 살았던 작가의 욕망과 작품의 관계망을 고찰함으로써 구명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그 욕망의 산물인 <난학몽>이라는 작품이 고전소설 황혼기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짚어볼 것이다.

2. 표방된 이념과 이면적 진실

1) 현실적 세계와 이념

논지 전개를 위해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¹⁴⁾

개국공 태부 한언범은 간신들이 득세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도학을 강론하며 지낸다. 나이 삼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형산도사의 권유로 석경산에 가서 자식 낳기를 기원한다. 꿈에 금난과 옥학을 받은 후 난선과 학선 쌍둥이 낳매를 낳는다. 학선은 홍각의 딸과, 난선은 이상서의 아들과 정혼하고, 유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한언범은 낳매의 권유로 최부인을 재취한다.

14) 한문본과 국문본의 관계에 대해 정창권은 국문본이 한문본의 정치적 갈등을 대폭 축약함으로써 작품을 가정문제 위주로 축소시켰다고 하였다.(정창권, 앞의 논문, 22면 참조.) 그러나 왕비연은 한문본의 정치적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 국문본에 거의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 번역자가 일부러 정치적 갈등을 축약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정 내적인 문제 위주로 서술되는 성격은 국문본이 더 뚜렷하지만 작가의 원래 서술의도도 가정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다.(왕비연, 앞의 논문, 11면 참조.) <난학몽>의 한문본은 3권 3책으로, 국문본은 4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회의 제목이 똑같으며 분책 지점만 다를 뿐이다. 필자가 검토한바 국문본은 줄거리 전개상 한문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황한 묘사나 교훈적인 서술이 약간씩 축약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지 전개를 위해 제시된 인용문은 한문본과 국문본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작가의식을 달리 해석할 만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난학몽> 한문본을 주 텍스트로 하고 국문본을 참고로 한다. 본문의 인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국문본으로 하고, 한문본 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최부인의 시비들이 남매를 무고하여 서로간에 오해가 생기고, 최부인이 학년을 낳고 한언범이 황제로 떠난 후 남매에 대한 구박이 심해진다. 한언범은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하옥되었으나 난선의 상소로 죽음을 면하고 유배된다. 학선은 쫓겨나 홍태위 집에 머무르고, 난선은 최부인의 계략으로 왕충가에 보내지나 시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최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리고 난선은 집으로 돌아온다. 한언범의 조카 한임은 유소저와 혼인하나 손부인의 계교로 유소저를 오해하여 회계로 돌아간다. 송향의 난에 군사를 일으켜 도적족 토벌하고 유점검을 만나 소저에 대한 오해를 풀다. 교지영을 제수받아 그곳에서 부친을 다시 만난다. 난선은 이형진과 혼인하고, 최부인은 오해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학년은 형을 찾아 길을 나섰다. 학년은 학소저와 정혼하고, 학선은 홍소저 오빠인 충인에 의해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홍소저의 도움으로 도망쳐서 형산으로 들어간다. 홍소저가 자결하나 혜청이 데려가 살려내고, 형산에서 학선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 혼인한다. 한언범은 해배하여 오고 학선도 등과하며, 학년, 최부인 등 모든 가족이 돌아와 화목하게 된다. 학선은 황제의 간청을 못 이겨 위녀를 소실로 맞아들이고, 왕안석의 신법이 다시 시행되자 한언범은 시행 불가를 상소하고 낙양으로 내려간다. 학년은 학소저와 혼인하고, 거란의 침입으로 학선이 집을 떠나자 위녀가 시부의 편애를 받도록 홍부인을 모해한다. 학선의 군사는 전쟁에서 패하고 학선은 자결하려다 전에 구해주었던 거북에게 구출된다. 한언범은 위녀의 말을 믿고 홍부인을 의심하다 학선이 죽은 줄 알고 홍부인을 죽이려 한다. 한임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학선이 돌아오자 위녀의 계교가 드러나고 위녀는 죽임을 당한다. 왕안석은 죽고 그 무리는 정배되어 태평성대를 이룬다. 한언범 생신에 유부인의 화상을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되니 이는 선을 쌓은 결과이다.

줄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난학몽>은 전대 고전소설의 서사구조 및 다양한 화소들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발문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옛 것을 모방하고 조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¹⁵⁾ 고전소설의 충실한 독자였을 정태운이 독

자에 머무르지 않고 창작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문학 텍스트는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에게 있어 욕망의 구현물일 수 있다.¹⁶⁾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욕망의 격전장이었던 19세기 후반, 작가 정태운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욕망은 무엇이였으며, 그 욕망은 작품 내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태운은 사대부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조부 때부터는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현실적으로 그 가문이 몰락한 상태였다.¹⁷⁾ 50세 이전에는 강화에서 살다가 50세 이후에는 안성으로 옮겨가 서당 훈장을 하며 떠도는 삶을 살았다. 그의 현실적 처지는 문화적으로 중앙과 교류하고 있던 근기사족(近畿士族)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작품의 성격이나, 설경(舌耕)¹⁸⁾하는 그의 말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정치적·문화적으로 소외된 향촌(鄉村)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15) 若乃倣興瑞之說話 據韓通之節義 或撰出新語 或摘取古籍 惡之甚者終受其禍戮 善之大者終致其慶福 著成一編之書者 卽予金鸞玉鶴之夢也 (<난학몽> 한문본, 378면.)

16)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신에 이미지·상징·표상·은유를 통해 보여지는데 문학 또한 인생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이미지·상징·은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보여준다. 꿈-텍스트가 분석/해석/분해될 때 그 꿈-텍스트가 생산되었던 과정에 관한 숨겨진 무엇인가(작가의 숨겨진 동기 또는 억압된 욕망)를 보여줄 수 있듯이, 문학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깅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2, 608면.

17) 정태운의 생애에 대해서는 정창권의 논문을 참고한다.

18) ‘설경’이란 무엇인가? 혀로 밭을 가는 것을 대신한다는 뜻의 조소적인 말이다. 곧 서당의 훈장 노릇을 가리킨다. 훈장은 글 읽은 사람의 손쉬운 직업으로 되었거니와, 서민 지식인으로 의식분자가 여기에 종사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설경은 현실적으로 혹은 생계의 수단, 치부의 수단은 될 수 있었지만 교육자로서의 직업의식을 갖도록 되지는 못했다. 임형택·최원식,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27~28면.

19) 19세기 한문소설을 창작한 작가층은 그 현실적 기반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능숙, 서유영, 남영로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소외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중앙과 교류하고 있었던 상층 사대부 출신의 작가들, 김소행과 같은 서얼 또는 중인 출신의 작가들, 그리고 목태립, 정태운 등과 같이 정치적·문화적으로 모두 소외되어

그러나 비록 중앙 정치무대에 나아가지도 못했고 새로운 문화의 흐름에 동참하지도 못했지만, 사대부 가문의 후손으로서 학문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난학몽>을 창작한 시기가 2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터이다.²⁰⁾ 그렇다면 당시 그의 일차적 욕망은 유가적 ‘입신’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양반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이면서, 그들이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욕망이다. 그렇기에 드러내놓고 지향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입신의 욕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난학몽>의 표면을 지배한다. 양반

있던 몰락 양반 또는 향촌 사족층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 부류에 따라 작품의 성격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상층 사대부 출신의 작가들이 꼭 짜인 층세의 이념이나 질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작품 분위기를 보여주었던 것에 반해 몰락 양반들의 작품 세계는 정통 양식을 고수하거나 보수적인 의식을 보이기도 한다.(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216~220면 참조.) 이기대는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태운도 심능숙, 김소행, 남영로, 서유영 등과 같은 근기사족으로 분류하였다. 그들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경화거족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교류관계는 유지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였다.(이기대, 앞의 논문, 18~19면 참조.) 그러나 정태운은 작품세계의 성격도 그렇거니와 행적이 밝혀진 말년, 충청도를 중심으로 떠돌며 죽기 전까지 서당 훈장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근기사족과는 문화적 시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 정태운과 문학적 행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동시대 인물인 매천 황현(1855~1910)의 이력은 향촌 지식인 정태운(1849~1909)의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천은 1883년(29세)에 실시한 보거과(保舉科) 초시(初試)에 주변의 권유로 시험을 보아 합격하였으나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석으로 밀려났다. 그의 지적처럼 ‘마을마다 급제자가 나오고 집집마다 진사가 있을’ 정도로 과거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 환로에 줄이 없던 시골의 한미한 유생이었던 매천은 입신출세에의 미련을 분연히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과거에 응시해야 한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34세(1888) 때 생원시를 보아 일등으로 합격을 하여 서울의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매천은 국가의 정사가 날로 부패해진 상황에서 다시는 서울을 출입치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정우봉, 『근대전환기 한 지식인의 운명』,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527면.

중심의 중세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충·효·열과 같은 이념은 입신의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이념은 <난학몽>의 중심 주제로 발문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전에 이르기를 ‘착한 사람이 선을 행하매 날이 부족한 듯이 여기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매 또한 날이 부족한 듯이 여긴다’ 했다. 대개 그 아버기를 사랑하고, 그 임금에게 충성하며, 그 웃어른을 공경하고, 그 벗에게 믿음이 있으며, 그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남편을 공경하며, 그 형제에게 의리가 있고, 그 자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현인과 숙녀의 일이니, 비록 불행하게 망극한 변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상서로운 기운이 그를 좇아 구제하고 보호함이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임금에게 불충하며, 벗에게 믿음이 없으며, 남의 부녀자에게 음탕하고 포악하게 하며, 남의 골육을 이간질하며,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덕을 닦은 선비를 속이는 것은 간신 음부의 일이니 비록 요행히 성명은 보전할지라도 반드시 재앙이 있어 그를 좇아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지은 까닭이다.²¹⁾

이처럼 <난학몽>의 중심 서사는 충, 효, 열, 우애 등을 귀결점으로 하여 전개된다. 이들 이념 중에서 특히 ‘효’는 맹목적인 만큼 강조되고 있다. 난선과 학선 남매는 시비의 농간으로 인한 계모의 오해로 박대를 받으면서도 계모가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을 명수(命數)의 탓으로 돌린다. ‘계모가 간언을 듣는 것은 자신들의 죄요 계모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음은 자신들이 불효하기 때문’²²⁾이라고 한다. 그리고 난선은 계모의 계략에 의해 정혼한

21) 是故傳曰 吉人爲善惟日不足 凶人爲不善亦惟日不足 蓋愛其親 忠其君 悌其長 信其友 孝其舅姑 敬其君子 義其伯叔 慈其子弟者 皆賢人淑女之事也 借使不幸而遭罔極之變 必有吉祥隨之而救護 不孝於父母 不忠於君上 不信乎朋友 淫暴人之婦女 離間人之骨肉 陷無辜之人 誣修德之士者 姦臣淫婦之事也 雖幸而保全性命 必有凶禍隨之而誅滅 此予此書所以作也 (<난학몽> 한문본, 381면.)

22) 모씨가 간언을 신정하시른 너의 죄요 사랑치 아니함도 너가 불효함이라 (<난학몽> 국문본, 70면.) 令母氏納邪格姦 則吾之罪也 失愛無慈 則吾之不孝也 (<난학

흔처가 아닌 다른 집으로 납치되어 가게 되는데, 모친이 포학하다는 욕을 얻게 될까봐 그곳에서는 자결하지도 못한다. 자신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불행은 모두 자신들의 불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에게 효는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리고 불충(不忠)의 문제도 덮을 수 있는 절대 가치이다. 왕안석이 주장하는 신법에 반대하여 상소를 올린 한언범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부친을 구하기 위해 난선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자 황제는 다름 아닌 그 효성에 감동하여 불충한 부친의 죄를 감해 준다. 전장에 나가 패한 학선은 동생 학년에게 서찰을 보내, ‘임금 섬길 날은 많고 부모 섬길 날은 적으니 속히 조정에 하직하고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라’²³⁾고 한다. <난학몽>에서 효와 충은 동계에 놓인다기보다 효가 충을 이기는 논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⁴⁾

이처럼 효가 지배적인 이념인 상황에서도 양반의 후손인 남성 작가로서 정치적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난학몽>의 배경은 북송대, 왕안석의 신법 시행을 둘러싸고 신법당과 구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이다. 작가는 신법의 시행에서부터 폐지까지, 왕안석으로 위시되는 신진 세력과의 대립으로 인한 주인공들의 성쇠(盛衰) 및 진퇴(進退)의 과정을

몽> 한문본, 66면.)

23) 현재는 임군 섬길 날은 만코 부모 섬길 날은 적으니 속히 조정의 효측하고 낙양의 도라가 양친을 봉양할지니라 (<난학몽> 국문본, 400면.) 賢弟 野人獻芹之日多 子路負米之年少 盍以此時 辭逢原之祿 趨孔鯉之庭乎 (<난학몽> 한문본, 334면.)

24) 대부분의 영웅소설이나 가문소설들이 효와 충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인다. 대개는 효를 하는 것이 곧 충을 하는 것이고, 충을 하는 것이 곧 효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난학몽>에서는 정치적 배경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작가 자신은 현실적으로 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신분 처지상 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효의 화신인 작중인물을 통해 효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 19세기 후반 중세 해체의 흐름 속에서 이 두 이념은 개인의 처지에 따라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작품의 구조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²⁵⁾ 이 시기는 개화와 보수가 각축하던 19세기 후반 조선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작가는 이 시기의 차용을 통해 중국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고, 아울러 당대 조선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작품 세계를 가정 내적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소외에서 오는 패배감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념을 충실하게 수호하는 주인공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그들이 얻어내는 가시적인 성과는 가문의 안정과 번영이다. <난학몽>은 가문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갈등인 계모·전실 자식 사이의 갈등과 처첩 갈등을 전후반에 배치하고, 이 갈등의 해결을 통해 가문의 창달로 나아간다. 한언범과 그 무리는 정치적 부침을 거둬주고 개인적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됨으로써 작품은 가문소설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결말 부분에 제시된 태부 한언범의 생일잔치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²⁶⁾ 몰락 양반인 정태운에게 있어 가문의 번영은 내 손 안에 있는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미래형의 당면 목표이기에 이는 입신의 욕망과 닮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세계는 국문소설에 더 견인되어 있으며, 그의 독서 이력 또한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는 <난학몽>을 한문으로 창작하였다. ‘한문소설을 지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문자를 한자로 택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문으로 작품을 썼다는 것은 곧 한문의 전통

25) 정창권의 논문에서 북송 인종대 신진세력의 등장에서부터 선인태후 대리청정기까지, <난학몽>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26) 한태부의 생일잔치는 그곳에 없는 유부인의 화상을 그리고 헌작(獻爵)하며, 성취를 이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한태부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헌수(獻壽)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장면은 가문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치로 대부분의 가문소설 결말 부분에 등장한다.

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작가가 중세적 사유 체계나 중세적 창작 관습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²⁷⁾ 한문은 기득권의 문자이며, ‘한문학은 원래부터 신분사회의 지배층이 지체를 굳히고 자부심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²⁸⁾ 정태운이 한문으로 소설을 창작한 것은 기득권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일 수 있다. 이는 기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이념을 주제로 내세우는 작가의식과 맥을 같이하는 행보이다.

이처럼 <난학몽>의 표면은 이념의 수호, 정치적 관심, 가문의 창달, 한문 표기 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는 양반 남성의 관심사와 지향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입신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 소설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그리고 <난학몽>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념의 소설화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에서 제시된 가치들과는 상충하는 모습들이 존재한다. 소설 창작이라는 행위와, 창작된 소설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또 다른 욕망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난학몽>의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소설적 세계와 진실

작품이 견고한 보수와 이념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작가는 ‘유가적 입신’이 아닌 ‘소설 창작’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입신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작가 내면의 또 다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설 세계에 대한 탐닉이며, ‘창작’에 대한 욕망이다. 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드러내놓고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인 욕망이라면, 후자는 은폐되어야 하는 것이면서도 주체의 의지가 작용하는 선택적인 욕망이다.

창작에 대한 욕망은 작품 내부 곳곳에서 다양하게 실현되지만 크게 두

27) 김정미(2000), 앞의 논문, 232면.

2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413면.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세계에 대한 탐색이고, 둘째는 소설 작법에 대한 모색이다.

(1) 여성세계에 대한 탐색

우선 <난학몽>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어 나타난다.²⁹⁾ <난학몽>은 여성인물이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품 내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의 갈등이 주가 되는 전반부 서사에서, 여성인물인 난선은 남성인물인 학선에 비해 주체적이며 능동적이다. 계모의 박대를 받는 과정에서 난선은 매를 맞고 누워 있는 학선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학선이 축출된 후 도적이 침범하자, 난선은 한임에게 도적을 토벌하여 입신양명하라고 하고 자신은 구택을 지키고 사당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한다. 해체될 위기에 놓인 가문을 지켜내는 것은 아들인 학선이 아니라 딸인 난선이다.³⁰⁾

그리고 신법의 부당함을 상소하다 옥중에 갇힌 부친을 구하기 위해 황성으로 가서 상소를 올리는 것도 난선의 몫이다. 부친을 찾아 황성으로 가는 난선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지만, 부친을 구하려는 의지만큼은 나약하지 않다. 자신의 목숨으로 부친의 죄를 대신하겠다는 난선의 모습을 본

29) <난학몽>이 여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다. 작가가 이를 발문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심을 해석하는 시각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필자는 그 관심의 의도가 ‘여성에 대한 교화’가 아닌 ‘여성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30) 양반 남성들의 공적 영역은 격심한 부침을 거듭하였다. 가문의 남성들이 격렬한 정치 투쟁에서 역사 속으로 화려하게 실종하면 깨진 가문을 추슬러 다시 세우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다. 할머니를 비롯한 여성들의 결사가 가문을 실제로 지배하곤 했으니, 가부장제 안에 독특한 가모제(家母制)의 영역이 숨 쉬고 있었다. 물론 이 가모제가 의사가 부장제 또는 가부장제의 대리자라는 성격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가부장제의 모성적 성격에 이제는 유의해야 한다.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293면.

한 신하가 어린 소녀의 자발적 행동일 리 없다며 도끼를 갖다 놓고 위협하는데, 난선은 오히려 목을 내놓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남녀 쌍둥이 중 난선에게 누나의 역할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난선의 역할은 학선을 압도한다.

역할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 인물의 의지 표현과 내면 토로가 탁월하다. 여성 인물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그러한 처지에서 발생하는 내면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전반부의 주인공이 난선이라면, 후반부의 주인공은 학선의 아내인 홍부인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부친 홍태위에게 정치적 조언을 서슴지 않고, 홍태위는 어린 딸의 조언을 받아들여 진퇴를 결정한다. 또한 홍태위가 기세한 후 오빠 홍충인이 학선과의 정혼을 파기하려 하자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오빠를 꾸짖으며 혼약을 지키려 한다. 이때 그녀가 내세운 것은 중세적 이념으로서의 ‘정절’이 아니라 인간 보편적 정의인 ‘신의’였다.³¹⁾ 자결로써 그녀가 말하려고 했던 것 역시 정절에 대한 의무가 아닌, 신의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³²⁾

다음은 학선이 전장에 나아갔다가 잠시 집에 들렀을 때의 장면이다. 홍부인의 신세 한탄은 절절하다.

31) 스람이 귀훈은 신의가 잇스미라 부친이 회계의 가서 혼인을 상약하실적의 그 신의 엇더히시며 한냥이 너 집의 잇셔 예을 조춘 폐박할 제 그 의가 엇더히며 또 홍안은 미물이라도 썩을 두 번 아니 취히니 허물며 스람이 신의를 이저 모르는 저 금조만 못흐오리가 (<난학몽> 국문본, 247면.) 凡人所以爲人者 以其有信義也 方父親自往會稽 議婚結約之時 其信何如哉 韓郎身留妾家 納幣成禮之時 其義何如哉 且以雌鳩之微物 尚不乘居匹處 鴻鴈之賤品 尚不再取其偶 況以人而棄信背義 曾不如禽鳥之無知乎 (<난학몽> 한문본, 201면.)

32) 정종대(앞의 논문, 192면.)는 ‘홍씨는 전통적인 유교 윤리관에 투철한 효부요 열녀이며, 간악한 첩의 모해를 참고 견디어서 가정의 화목을 쟁취하는 유교도덕의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였다. 그는 홍부인이 적극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유교도덕의 전형으로만 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홍부인 왈 군자는 국가의 중임으로 만 니 밧 변방의 노아가시니 설혹 피늘
홀이고 뼈가 굴너단여도 충의 〃 혼이 되니 슬플 거시 업스나 청상과부는 빈
방의 혼츠 잇서 겨울밤 여름히 길고 긴 씨의 검침이 고단하고 하날이 문어저
눈물만 흘리오니 첩이 엇지 건디오며 연만흐신 존구겨서 상명흐신 죠석 눈물
첩이 엇지 위로하며 강보의 열인 즈식 죠석으로 호부하니 첩이 츄마 들을잇가
이 스경을 통촉호오³³⁾

남자는 설령 전장에서 죽더라도 충의의 혼이라도 되니 슬플 것이 없지
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인 혼자의 몸으로 연료한 시부와 어
린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성으로서의 외로움도 크다.
그리고 영역만 다르다뿐이지 여성의 역할도 중요한 것인데, 남성의 경우와
달리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더 슬프다. 이것은 효부, 열녀로서
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이다. 남성 작가에 의한 서술 치고는 파격적
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토로를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를 읽어낼 수 있으며, 그 자아실현이 비단 공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는 진리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물들의 적극성이나 성취
여부를 떠나서, 그녀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욕망하는 입체적 인물
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보수의 표면에 묻혀버릴 수 없
는 것이다.

여성의 내면에 대한 탐색이 선한 여성인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도 의미가 있다. 토로의 기회는 악한 여성인물들에게도 주어진다. 전반부

33) <난학몽> 국문본, 346~347면. 洪夫人曰 君子身繫國家之重任 出戍萬里之邊 雖血
塗干戈 骨暴沙場 在君子爲忠義之魂 於國家爲武毅之鬼 無所悲惜也 至於青年孀婦
獨處空閨 冬之長夜 夏之永日 孤衾未暖 半枕纔欹 幽夢難做 驚魂又散 濕臙粧而啼
紅 猗雲鬢而泣綠 月入簾而玲瓏 風撼帷而淒涼 憐畫床之設燭 悲秋塞之崩城 令妾
何以堪之 白髮尊親 年高兩堂 悲春鳩之墮雛 聽晨烏之反哺 哭喪子夏之明 泣成顧
況之血 過臺路而慟至 題崔字而淚垂 令妾何以慰之 髣髴幼兒 僅免襁褓 而未有所
知 暝夕清晨 匍匐床下 喚爺呼父之聲 令妾何以聽之乎 (<난학몽> 한문본, 294면.)

서사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악인인 계모 최부인은 가장이 유배를 간 사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옛말에 인생이 나매 부녀의 몸은 되지 말라 백년고락이 남에게 매였도다.’³⁴⁾라고 말한다. 이 말은 개인의 성품 문제와는 별개로 여성의 삶이나 계모라는 역할 자체가 가지는 비극성을 함축하고 있으면서, 여성이 남성애 종속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후반부 서사에서 거침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학선의 첩 위녀 역시 첩이라는 신분에 부여되는 모순적 역할에 저항한다.

일〃은 티부게서 흥부인과 곱씨와 위녀를 부르스 찰예로 안치시고 각기 소원을 말하라 하시니 흥부인 왈 정성을 다호와 구고게서 질겁게 흡고 공경 호야 군즈게 순중호흡고 식숙과 동서의계 의을 상치 말고 서첩의계 투기를 말아 비복의계도 인즈하다 말 듯기를 소원이로소이다 곱씨 왈 모친이 보니실 격의 경계호스 왈 너즈는 순호고 받오게 호는 것이 제일이라 호셔소오니 몸을 나타이 말며 마음을 유순케 호와 미스를 바르게 호야 죄칙이 업기를 소원호스 니다 위녀 왈 봉제스 첩빈직은 서첩의 즉칙 아니온즉 감이 바라지 못호거니와 군즈와 갓치 금실노 화답호고 검침의 안고 잇서 군즈의 마음만 죠케 호는 거시 소원이로소이다³⁵⁾

시부가 며느리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부도를 다하고자 하는 흥부

34) 옛말의 인생이 나매 부녀의 몸은 되지 말라 백년고락이 남에게 매였도다 (<난학몽> 국문본, 197면.) 昔人有言 人生莫作婦人身 百年苦樂由他人 (<난학몽> 한문본, 161면.)

35) <난학몽> 국문본, 304~305면. 一日 太傅召洪夫人郭氏及衛女 以次坐於筵前 問曰 願聞汝三人之志 洪夫人曰 願盡勤誠之心 悅樂舅姑 致敬戒之道 順從君子 義不乖於伯叔 情不離於姊妹 使婢妾無妬怨之情 使卑幼 庇恩慈之德 郭氏曰 母氏之送妾也 臨門戒之曰 女子之道 不出乎順正而已 願夙興夜寐 不惰其身 從事於柔順中正 則或可以無大過矣 衛女曰 養舅姑 奉祭祀 非庶婦之任也 妾不敢當 但願與君子 樂琴瑟之和 勤衾裯之抱 雖無好友 式燕且譽 雖無他人 式歌且舞 以悅憚君子之心 (<난학몽> 한문본, 251~252면.)

인이나 꺾부인과는 달리 위녀는 ‘봉제사 접빈객은 자신의 몫이 아니니 할 수 없고, 군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후반부 처첩 갈등의 핵심적 원인 제공자는 시부 한언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위녀가 보는 앞에서 정실 흥부인에게만 계절향 두 개를 줌으로써 위녀의 욕망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³⁶⁾ 제도의 모순과 주변인물의 차별적 태도가 위녀의 악행에 암묵적 충동을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선악을 떠나 중세적 가족제도 내에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현실의 남성세계보다 소설 속 여성의 세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난학몽>은 계모형과 쟁총형 갈등의 조합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단순히 전대 서사구조를 모방하거나 혼란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작가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다채로운 여성 형상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로 활용된다. 이 갈등의 조합을 통해 선한 어머니, 악한 계모, 효녀, 선한 처, 악한 첩, 충직하거나 악한 시비 등 가문의 영역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작가의 관심 대상은 중세 이념에 부합하는 효녀, 열녀(烈女)만이 아니다. <난학몽>은 단순히 여성 교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적 세계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열녀전(列女傳)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³⁷⁾

36) 티부 우스시고 계절향 두 기을 낭중의셔 너여 흥부인을 주서 왈 이것은 황계게서 충이하는 신하에게 주신 것이라 이제 너을 주니 디”로 종부에게 전하야 후세 즈손이 우리집에 국가 은덕이 중하시를 알게 하라 (<난학몽> 국문본, 305~306면.) 太傅笑而頷之 從囊中探出鷄舌香二枚 賜之洪夫人曰 此物雖不足爲奇玩 先皇所以恩賜寵臣者也 今以賜汝 必世世傳之宗婦 使後世子孫 知國恩之重於吾家也 (<난학몽> 한문본, 252면.)

37) 실제로 『열녀전』은 여성들의 행적을 모의(母儀), 현명(賢明), 인지(仁智), 정순(貞順), 절의(節義), 변통(辯通), 열폐(孽嬖)의 일곱 주제로 나누어 실고 있다. 비록 남성에게 의해 저술된 책이기는 하지만 여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이중적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한 최초의 고전이다.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는 작가가 여성세계의 현실적 변화를 직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의 작품세계로 미루어 보아 그의 독서는 여성세계를 다룬 국문 가정·가문소설류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독서 이력은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불우한 향촌 지식인인 자신과 <난학몽> 서사의 중심인 여성은 당대 사회적 타자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여성에 대한 그의 관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³⁸⁾ 나아가 이는 여성 독자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태운은 작가이기 이전에 여성 독자가 주도하는 당대 소설사의 흐름을 읽고 있던 독자였다. 정태운은 창작 당시부터 번역을 전제로 한 여성 독자층을 상정했을 수 있고, 작품의 성격으로 볼 때 국문 번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³⁹⁾

『열녀전』, 예문서원, 1996, 21~31면 참조.

- 38) 이승수는 <옥루몽>을 다루면서 '19세기 불우한 지식인들이 여성영웅을 내세운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타자였던 19세기 여성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타자였던 작가들이 타자로서의 동일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승수, 『<옥루몽> 소고 1-남녀지기론의 허실과 여성의 발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장간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0, 207~208면 참조.) 이지하도 '19세기 한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형상화가 여성적 현실의 제고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불우한 사대부의 처지를 대변해주고 이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았다.(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361면 참조.) 여성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정태운의 의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39) <난학몽>은 적어도 1871년 이전 정태운에 의해 한문으로 창작되어 그 원문이 후손들을 통해 전해지고, 1908년 이전 이민제에 의해 번역되어 안성 부근을 중심으로 읽혔으며, 1908년 죽산면 나촌에 사는 이연풍택의 누군가에 의해 필사되어 읽히기도 했다. <난학몽>은 정태운의 생촌 시 이민제에 의해 국문으로 번역되어 안성 부근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거나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정창권, 앞의 논문, 20~21면 참조.) 그런데 작품 내제 아래에 있는 '용머리 오진옥'이라는 기록은 흥미롭다. 김태환은 국문본 필사자의 이름이라고 하였다 하고(정창권의 논문에 언급되어 있으나 필사는 김태환의 논문을 확인하지 못했음), 정창권은 낙서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책의 다른 부분에 낙서가 전혀 없고 글씨체가 반듯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단순한 낙서로

덧붙여 사회적 타자로서 여성과 동궐에 놓이는 하층민에 대한 관심도 두드러진다.⁴⁰⁾ 시비와 노복의 역할이 갈등의 발생과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보면 남성·양반이 아닌 여성·하층민의 모습을 통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변화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⁴¹⁾ 이것은 <난학몽> 표면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2) 소설 작법에 대한 모색

<난학몽>은 내용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소설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난학몽>의 발문은 문답식 대화를 통해 독자가 할 수 있는 예상 비판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보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용머리’는 현재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용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곳은 현전 국문본이 필사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과 멀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면 ‘오진욱’이라는 사람은 이연풍택에 고용되어 <난학몽>을 필사한 사람이거나, 이 책을 빌려 본 사람일 수도 있다. 굳이 구석진 곳에 이름을 써 놓은 것은 자신의 이름을 떼땀이 내세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난학몽>의 국문본이 안성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필사되고 읽혔을 것이라는 짐작의 방증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학년(鶴年), 옥염(玉艷) 등의 이름이 학연, 옥연 등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국문본의 충실한 번역 상태를 감안한다면 번역자가 이런 실수를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역시 번역 원본과 현전 국문본 사이에 또 다른 필사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사는 대개 여성 독자를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0) 정중대(앞의 논문, 195면.)는 <난학몽>의 인물 특징 중 하나로 ‘하층민의 발랄성’을 지적한 바 있다.

41) <난학몽>은 신분제의 동요를 통한 인권에의 각성·여성의 자존의 목소리·가문주의에 대한 개인주의의 발흥 등과 같은 당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유교 윤리의 수호로써 과거에의 고착을 도모하는 한계성이 짙은 것이다. 이는 <쌍선기>에서 합리적인 가족관계를 모색하거나, 하층민에 대한 시야를 넓힘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지향했던 것에 비한다면 명확히 드러난다. 최지연, 『<쌍선기>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87면 참조. 이는 19세기 장편소설과의 연관성 논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쌍선기>를 논의의 초점에 두다 보니 <난학몽>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변화를 의미 있게 읽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발문에 나타난 고민은 작가의 풍부한 독서 체험에서 나온 반성의 결과이며, 작가가 분명한 작가의식과 독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해 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 요약적 설명이 아닌 장면화를 통한 보여주기 기법을 시도하고 있다. 발문에서도 설명과 묘사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외모 묘사에 대한 언급이다.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씨, 곽씨, 홍씨 등 여러 부인들은 모두 그 덕을 칭송함이 옳거늘 그대는 이에 그 여색을 너무 칭송하였으니 어찌된 것인가?” 말하기를 “이는 문세가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된 것이다. 위나라 사람이 장강의 덕을 칭송하여 말하기를 ‘큰 사람이다’ 하였고 주나라 사람은 태임의 덕을 칭송하여 ‘엄숙한 태임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주나라의 장강을 사모한다’고 하였고, 태사의 덕을 칭송하여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이다’라고 하였으니, 부인의 덕을 칭송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여색을 칭송해야 하니 이치와 문세가 진실로 그러하다.”⁴²⁾

기존의 창작 관행상 부인의 덕을 칭찬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용모를 칭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성격 묘사를 외양 묘사로 대신해 왔다는 것인데, 작가 자신은 도식적인 인물 묘사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세(文勢)를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작품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의 노력이 엿보이는바, 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할임이 황제 명영을 어기지 못하야 위씨을 소실노 마질시 교변허는 날을 당하미 위녀 초례석의 느지 아니하거늘 시비 등이 위녀을 옹위하고 나와서

42) 曰 然即 如韓郭洪諸夫人 皆只稱其德可也 子乃盛稱其色何也 曰 是文勢不得不然也 衛人稱莊姜之德曰 碩人其碩 周人稱太姬之德曰 思齊太姬 思媚周姜 稱太姒之德曰 窈窕淑女君子好逑 欲稱夫人之德 必先稱其色 理勢之固然也 (<난학몽> 한문본, 383면.)

억지로 허리를 굽혀 절을 식여더니 위녀 또 먹지 아니하고 음식을 전폐하며
과부의 절기를 굳혀 지가식여 지손을 발안다 하고 부모를 원망하여 그 포악함
을 츠마 볼 슈 업는지라 한임이 그 마음의 진위를 알 슈 업셔 생각하여 왈
위씨의 정열이 진정 이러흔 거슬 부모가 변기하여스면 과연 변괴로다 이날
밤의 시동이 한림을 인도하여 신방의 드러가서 단정이 안지미 시비가 위씨를
옹위하고 드러오니 위씨 고집하고 방의 드지 아니하는지라 시비들이 억지로
문지방을 넘겨놋코 굽혀 나아가서 문을 닫고 잠그니 위씨 펼 〳 썩며 발악하다
가 할 슈 업셔 두 다리를 썩고 안져 낙누하고 탄식만 하게늘 한임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을 시험코져 하여 춤견도 아니하고 혼츠 누어 코을 끌고 즈다가 홀
지의 가위 눌인 모양으로 소리를 질으며 혈덕이니 위녀 눈을 흘겨 보고 귀를
기우려 듯다가 도리안져 손으로 팔을 흔드려 씨우니 한임이 도리누며 섬어하
여 왈 밤이 깊혀거늘 누가 나올 씨이시고 위녀 왈 디장부의 괴품으로 조용한
금침 우의 시로 만는 첩은 보도 아니하시고 혼츠 잠만 즈는요 한임이 그제야
위녀의 심정이 간교하고 험악함을 알고 탄식하고 일어나서 의상을 벗고 버지
을 갖치하고 밤을 보나이러⁴³⁾

위녀가 학선과 혼례를 치르는 날의 상황이다. 위녀는 부모가 자신의 절
개를 팔아 재산을 바란다고 하며 행패를 부린다. 학선이 첫날밤에 그 진심
을 알아보고자 거짓 연기를 한다. 잠자는 척하는 학선을 깨우는 위녀의 모

43) <난학몽> 국문본, 286~288면. 韓翰林不敢方帝命 故以側室之禮 聘衛女 及親迎之
日 當交拜之 衛女不肯就拜 侍婢挾腋膊 抑其腰而俯折之 擁其肘抑損之 纔成拜禮
而衛女又不食同牢之脯 惡言暴說 詬怨父母 以爲奪寡女之節而嫁之 得其聘財之厚
翰林固莫知其心之眞假 念曰 衛氏之眞心 實誠如許 而父母抑奪其志 則果是大怪矣
是夕 侍僕引護翰林 而之洞房 翰林就席端坐 頃之 侍婢擁挾衛女而至 衛女又不肯
入 侍婢挽臂推背 既踰櫳扇而入 侍婢急出 閉戶而鎖之 衛女飛身跳躍 茂其惡毒 稜
如矛戟 不可干犯 久之 伸足而坐 拭淚收泗 恚然嘆息 翰林欲試其志 就枕而寐 鼾鼻
半响 詐爲魘噩之狀 聲轉?喘急 氣轉窒塞 衛女側耳而聽 轉眸而眄 回身而坐 推其肩
而覺之 翰林轉身而覺 噓然通氣 而復祭手斂足 仍作嚙語曰 長宵如閨 誰其覺我乎
衛女乃曰 君以大丈夫之氣質 當此幽暗之中 衽席之上 不顧新聘之妾 而獨宿耶
(<난학몽> 한문본, 233~234면.)

습을 보여줌으로써 절개를 운운하던 그녀의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위녀의 성격을 한마디로 간교하고 험악하다고 말해버리고 말 수도 있지만, 사건의 정황과 그녀의 행동을 장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녀의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천편일률적인 외모 묘사를 넘어서는 것이면서, 성격 묘사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성격 묘사뿐만 아니라 사건 서술에 있어서도,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장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유소저가 음행한 것처럼 꾸미려는 손부인의 계교에 동조하던 하인 진동이 실수로 칼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범인임이 탄로 나는 장면이다.

명일의 좌우를 물이고 점검게 전혀여 왈 녀아의 말이 여츰허더니 첩이 섬돌 틈의서 이 칼을 어든지라 원컨디 군즈는 살피소서 점검이 칼을 가지고 외당의 노아와 창두를 다 정하의 불너 소피흐 칼을 글너 올리라 하니 창두가 칼을 다 글너 올리거를 점검이 오부인 주든 칼을 한테 석거녀여 주며 각기 다 츠저가라 하니 창두들이 각기 제 칼을 츠자가고 오부인 주든 칼 하나 남으니 창두들이 진동을 보고 왈 이는 네 칼이라 엇지혀 아니 짐노 하거를 점검이 진동이 칼인 줄 알고⁴⁴⁾

모든 창두들의 칼을 꺼내 놓게 하고 범인의 칼과 섞은 후 각자 자기의 칼을 찾아가라고 한다. 다른 칼은 모두 찾아갔는데 범인의 칼만 남아 있다. 창두들이 진동을 보고 ‘네 칼인데 왜 가져가지 않느냐고 한다. 이로써 진동

44) <난학몽> 국문본, 160~161면. 明日 令侍婢囑點檢而入 辟左右而授劍 詰諷曰 女兒之言 如此如此 而妾得此劍於礎砌之間 願君子詳之 點檢袖劍而出 坐於西廂 令蒼頭一切 會於廂下 囑令獻所佩之劍 蒼頭次第解劍而上之 點檢暗置吳夫人所授之劍於其中 雜錯而拋諸庭上 令曰 汝等各自點考已劍而揀取 蒼頭次第點取 而獨一劍無人取之者 乃吳夫人所得之劍也 諸奴顧謂秦童曰 此非君之劍耶 何不取之 點檢乃知秦童之劍 (<난학몽> 한문본, 128면.)

이 범인임이 밝혀진다. 대화와 묘사로 전개되는 이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한다.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독자는 좀 더 흥미롭게 서사에 빠져들 수 있다. 장면을 통한 보여주기는 독자의 역할을 위한 여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작가가 작품에 개입하여 의도를 전달하거나 논평하지 않고 가치 판단의 문제를 독자의 몫으로 넘겨준다. 세상은 이미 단일한 가치가 지배적으로 군림할 수도 없으며, 독자 또한 가치 판단의 강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도 않는다.⁴⁵⁾ 보여주기 기법을 통해 작가의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시도는 근대적 소설 작가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이런 장면들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작가가 시대적 변화와 소설사적 요구를 감지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환상성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일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작가는 비현실적인 요소의 서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보여준다. ‘형산도사를 통한, 학선에 대한 초현실적 힘의 도움은 위기를 넘기는 계기를 제공하였지만, 그때 익힌 병법으로 그가 전쟁에 승리하여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도움은 꼭 제한적이며, 난선에 대한 초현실적 세계의 도움도 노독(路毒)을 풀어주는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것이다.’⁴⁶⁾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 천상계의 개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한언범이 삼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것을 본 형산도사가 석경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자, 한언범은 그렇

45) 보여주기 방식의 서술은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능동성, 능동적 독서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은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표문, 편지글 등의 삽입으로 인해 그들의 논리성을 기쁘게 보는 지적인 재미가 있다.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59면. <난학몽>의 보여주기는 대화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사건 묘사 등을 통해서도 시도된다.

46) 정종대, 앞의 논문, 184면 참조.

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한언범이 결국은 형산도사의 말을 들어 자식을 얻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러한 의심의 표명에서 초월적 힘에 대한 불신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난학몽>에서 천상계가 개입되고 있기는 하나 현저히 약화된 형태이고 대부분은 현실적인 논리로 해결되고 있다.⁴⁷⁾

이러한 현실주의적 성격은 일상성의 강화로 이어진다. 다음은 전장에 갔다가 잠시 다니러 온 학선이 다시 떠나려는 장면이다.

닥이 울며 추밀이 작별하고 일어나니 곤옥이 추밀의 물음을 버이고 일지 아니하거늘 부인이 안아서 물이쳐 왈 부친이 일을 다 못 보셔 〃 경성의 또 가서 미구의 오신단다 곤옥이 울며 왈 또 경성의 가면 이번처럼 더디 오시게 추밀이 문을 열고 나가니 곤옥이 울고 쏘츠 나가며 왈 아바야 나을 두고 어디 가오 나와 가지 잡시다 흥부인이 집어 안으니 곤옥이 울기만 하니 부인이 실과늘 주며 달너더라 추밀이 말을 다시 타고 담을 너머가니 부인이 유아을 안고 낙누하며 방의 드러오니 이씨는 오경시후라⁴⁸⁾

학선이 떠나려고 하자 아들 곤옥이 학선의 무릎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흥부인이 곤옥을 달래보지만 곤옥은 울며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쓴다. 가족을 두고 전장에 가야 하는 학선도 안타깝지만, 떠나는 가장보다는 오히려 남겨진 아내와 아이의 애환이 더 눈물겹다. 어린 아들 곤옥의 목소리는 이 별의 슬픔을 배가시키고 있다. 가족제도 내에서의 며느리나 가부장이 아닌,

47) 김경미(1992), 앞의 논문, 613~614면 참조.

48) <난학몽> 국문본, 349~350면. 鷄既鳴矣 樞密辭決而起 崑玉枕其膝 而不肯起 恐其復去 洪夫人引却 而寘之座上曰 父親以不獲已之事 復往京城 不久當還 崑玉啼曰 復往京城 又必如今日之遲還 樞密開戶而出 崑玉啼而隨出曰 郎罷捨我何之 與我俱去 洪夫人挈其手而抱 寘衣衽之間 崑玉猶啼不已 夫人棗栗榛梨之屬 與之而誘說之 樞密乘駿馬 踰牆而去 洪夫人抱其幼兒 出送樞密 時夜五更 (<난학몽> 한문본, 296~297면.)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일상과 만나게 된다.⁴⁹⁾ 엄격한 규율만 존재하는 사대부 가문의 비현실적 삶이 아니라 일상적 고뇌가 그대로 묻어나는 생활의 한 단면들이다. <난학몽>은 상층 가문소설의 이상과 하층 가정소설의 현실을 함께 껴안으면서 근대적 가족의 문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서, 작가의 고민이 전대 가정·가문소설의 문제의식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웃음의 요소를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경직된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의영이 적막한 씨를 타서 잡종비적하야 신부방의 일으니 코고는 소리 는 지라 깃거 왈 신부 멀이 오미 심역이 피곤하야 잠이 깎피 들어도다 하고 치봉의 머리를 만져 왈 신부는 나와 참 천정연분이로다 그 옷끈을 풀어 하니 치봉이 전신하며 섬어 왈 김흔 밤의 누가 아니 즈고 남의 곤헌 잠을 흔드는가 의영이 더욱 깃거하야 왈 신부는 잠의 곤하고 향여의 사랑흠은 생각 안는가 신부가 는와 운우의 정을 흔번 풀면 빅 년의 단숨을 갖치 하리로다 엇지 금야의 홀노 잘ियो 이의 다시 발을 만지고 물음을 더드무니 치봉이 변신하야 달이를 드러 가슴을 츠며 왈 신부는 잠이 업느냐 엇지하야 즈지 안코 곤헌 스람을 괴롭게 하느냐 의영이 가슴을 츠이고 즈빠져 머리를 병풍의 부딪고 다시 이러 나서 그 허리를 안어 왈 니가 신부는 아니나 잠은 업서 이리 호노라 빅 년의 정을 오날밤의 밋고 습심의 언약을 일우려 호노라 또 그디가 신부를 즈충하면 서 니게 허신 아니코즈 허른 엇지흔 일이오 치봉이 비로소 씨여 그 형의 말을 듯고 일어 안져 왈 가형이 녀식의 흑하야 누의를 신부로 이느냐 의영이 디경하야 불을 켜고 보니 이는 그 누의라 의영이 슈괴하야 출문하미 소저의 도망

49) 우리 고전소설에 어린 아이가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상성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가문소설에서도 드문 일이다. 더구나 아버지와 이별하기 싫어 떼를 쓰는 아이의 모습은 낯설기조차 하다. 학선의 아들 곤옥의 존재를 통해 <난학몽>이 관념이 지배하는 비현실적 세계가 아닌 생활이 지배하는 현실적 세계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흠을 알고 부친게 고왈 신부가 도망하여는니다50)

난선은 계모 최부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충가로 보내지게 된다. 시비 청양의 도움으로 난선은 이미 도망가고 없고, 왕충의 딸인 채봉은 그 사이 외로운 신부를 위로하라는 부친의 말에 못 이겨 잠결에 신부의 방으로 가 자고 있다. 영문을 모르는 왕충의 아들 의영은 그 방에 신부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몰래 들어가 잠자는 사람에게 치근댄다. 그런데 거기서 자고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 바로 자기 동생이어서 동생에게 창피를 당하게 된 것이다. 마치 관소리계 소설의 한 대목처럼 한바탕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를 의도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흥미에 부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사회가 경직되어 가는 것에 대한 조절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위녀가, 흥부인이 자신을 투기하여 저주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한태부가 이를 알게 하려는 대목이다.

불근 글시로 황지의 써셔 후원 담밧 으스흔 데 목인과 갖치 못으니 위녀 강빈을 보니여 옛보와 못는 곳을 알고 즉시 티부게 보니여 고왈 흥부인이 위

50) <난학몽> 국문본, 133~135면. 宜永乘其人寂之時 潛踪秘跡 而至洞房 聞其鼾睡之聲 喜曰 新婦遠來 心力疲困歟 夢深黑恬之鄉 不知黃粱之已成飯也 乃以手撫彩鳳之鬢曰 新婦之於吾 眞天定之緣分也 欲解其裙帶之際 彩鳳轉身寢語曰 長夜深宵 誰其不寢 而攪動此睡深之人也 宜永益悅曰 新婦昏困於睡寐之酣濃 而不念伉儷之交愛耶 新婦與吾 一解雲雨之情 則宜共甘百年之夢寐 何必今夜耽此孤眠宿耶 乃復撫其足 而捫其膝 彩鳳翻脚蹴胸曰 新婦無寐歟 何其不寢 而惱睡困之人也 宜永胸撞而倒 以頭觸其屏矣 復起而抱其腰曰 我非以新婦爲無寐而然也 實欲交百年之情於今宵 結三生之約於此夜而爲也 且君旣自稱新婦 而不欲許身於我者 何也 彩鳳始寢 而聞其兄之語 乃起而坐曰 家兄慾湧於女色 以妹認新婦耶 宜永大驚 燃燭而視之 乃其妹也 大慙而出 乃知小姐之亡去 啓其父曰 新婦逃去矣 (<난학몽> 한문본, 107~108면.)

낭즈를 투기하야 목인을 만드러 후원 담 밋헤 못고 귀신의게 지앙을 청하야 위낭즈가 병이 들어 점 〃 더하오니 살지 못하느니라 이씨 터부 노흔흐스 눈 어둡고 귀가 먹어 말은 횡듯고 왈 흥부인이 위낭즈의 투기를 만나 목인을 못고 귀신게 빌어 흥부인이 병드러단 말이나 강빈이 소리를 질너 왈 흥부인이 목인을 후원 담 밋헤 못어 위낭즈를 방즈하야 위낭즈가 병이 드러 살지 못하느니라 터부 왈 흥부인이 그러할 이치가 잇슬리요 네가 필경 잘못 보아도다 강빈이 다시 말 못 하고 노오니라⁵¹⁾

위녀의 시비 강빈이 한태부에게 흥부인이 위녀를 투기했다고 한다. 잘못 들은 태부가, 위녀가 흥부인을 투기했느냐고 한다. 시비가 다시 소리를 질러 흥부인이 위녀를 투기했다고 하자 그제서야 제대로 알아듣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태부는 이후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흥부인이 고난을 겪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그는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것으로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태부를 회화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귀가 먹은 태부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듣는다. 진실 여부를 떠나 태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소통이 부재하고 경직된 사고를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져 웃음을 유발한다.⁵²⁾ 이념과 질서의 수호자인 가부장을 굳이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51) <난학몽> 국문본, 331~332면. 以形筆朱墨 書之於帛 并埋於後園墻下隱僻之也 衛女使江蘋 竊聽而知 其所埋之處 卽令往訴於太傅曰 洪夫人猜嫉衛娘子 作木俑 埋於後園墻下 請神加殃 故衛娘子 以此罹祟 疾大漸惟幾 病日臻 殆不興悟 時 太傅年已老耄 故耳聾眼昏 橫聞其言 乃認曰 洪夫人爲衛娘子所猜嫉 埋木俑而請神加殃 故洪夫人 以此得病 江蘋高聲曰 洪夫人埋木人於後園墻下 以呪咀衛娘子 衛娘子以此得病 無回春之道 太傅罵曰 洪夫人安有如是之理 此必汝之誤見謬認也 江蘋低頭無言而退 (<난학몽> 한문본, 279~280면.)

52) 앙리 베르그송은 희극적 인물의 결점으로 정신과 성격의 완고함, 방심, 기계적 동작 등을 지적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만을 따르는 인물이며, 그가 원하는 것만을 보려는 사람이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그들의 정신은 결국 자기 생각을 사물에 맞추는 것이

은, 일상적 삶 속에 내재된 이러한 웃음을 통해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의 붕괴를 보여주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읽을 수 있다.⁵³⁾ 이는 이념의 해체에 어느 정도 기여함과 동시에 긴장을 늦추는 기능도 한다. 이념의 향연 속에 배치된 웃음이기에도 더 의미를 지닌다.

검토된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이념 이면에 제시된 작가의 욕망과 고민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 대목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학몽>의 이면은 여성의식의 확대, 경직된 가치 판단에 대한 반성, 일상성의 발견, 웃음을 통한 이념의 해체 시도 등으로 드러난다. 작가는 발문에서 ‘문세’라는 이름으로 전대 소설 작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작품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대 소설의 도식적인 작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물론 <난학몽>의 시도가 온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전대 소설들이 추구해온 변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이다. 그러나 작가는 적절한 취사선택과 새로운 시도로 변화하는 현실 및 소설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창작에 대한 작가의 욕망이 우발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

3. 19세기 후반 향촌 지식인의 욕망, 그 이중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난학몽>에는 지향이 다른 두 가지의 욕망이 존재

아니라 사물을 자기 생각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앙리 베르그송, 정연복 옮김, 『웃음』, 세계사, 1992, 149~150면 참조.

53) <난학몽>의 웃음은 <구운몽>이나 <소현성록>이 보여준 유희적이고 양반적이며 체제옹호적인 웃음에서 한 계단 내려온 것이다. 물론 판소리계 소설의 웃음이 지니는 풍자적, 서민적, 체제변혁적 성격을 온전히 담아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엿볼 수는 있다.

한다. ‘입신의 욕망’은 ‘당위’의 문제이고 ‘창작의 욕망’은 ‘선택’의 문제이다. 전자는 이념, 정치, 남성의 영역을 통해 작가의 이상을, 후자는 소설, 가정, 여성의 영역을 통해 현실을 관장한다. 정태운은 과거를 통한 입신의 욕망을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 욕망의 성취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자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가까이 존재하고 더욱 흥미로운 소설의 세계에 매료되었고, 창작의 욕망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당위적 욕망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상처되는 두 욕망은 각각 작품의 표면과 이면을 지배하면서 이중성의 연원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난학몽>에 내재된 두 욕망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이들은 작품 내부에서 서로 충돌하고 교차된다. 작가에게 있어 이들은 여전히 흔들리는 욕망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뚜렷하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충돌과 갈등이 빚어낸 복잡한 교직(交織) 속에서 각각의 욕망은 그 이면을 통해 반대항의 표면과 상통하는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난학몽>은 이중성 속에 모색과 한계를 동시에 담고 있는 텍스트가 된다.

이념과 남성적 세계로 대변되는 입신의 욕망, 그 이면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작가의 사회적 성취 욕구나 정치적 야망이 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인물들은 뜻밖에도 대부분 유약하고, 무력하며, 초라하다. 전후반부에 걸쳐 남성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은 학선이다. 그는 20대 청년 작가의 대리인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학선에게서 남성적 영웅성이나 정치적 의지 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계모와의 갈등과정에서 계모의 학대를 받고 누워 있으면서 누나의 보호를 받는다. 이때 부친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은 누나인 난선이다. 후에 계모와의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결국 정혼한 홍태위 집에 의탁하게 된다. 홍충인의 모해를 당하고 길을 나섰다가 형산도사 이창선의 도움을 받고 병서를 익힌 후, 세속을 떠나 선불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전장에

서는 병기를 다 잃고 말을 달려 도망하고 결국은 자결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애초부터 입신의 세계를 욕망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⁵⁴⁾

한언범 역시 정치적 맥락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간신이 득세하자 처사라 자칭하며 초야에 묻혀 지낸다.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해 상소를 올렸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딸 난선의 상소로 해배된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적 색채나 의지를 드러낸다기보다 난선의 효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는 가정 내 환란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위녀의 참소를 믿고 흥부인을 오해한 것이 밝혀지자 참괴함에 스스로 죽겠다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나이가 든 후의 그는 귀마져 어두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물로 그려지면서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언범은 전후반부 갈등 심화의 주된 원인 제공자이다. 부재하지는 않지만 존재감이 매우 미약한 가부장이다.

또한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남성인물들의 정치적 성향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정치적 갈등이 서사 전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동시대의 작품인 <옥루몽>에서 남영로가, 양창곡의 입을 빌어 당대 제도의 모순과 폐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⁵⁵⁾ <난학몽>에서는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 그 부당성과 위험성을 역설할 뿐, 신법이 지닌 개혁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⁵⁶⁾ 왕안

54) 많은 연구자들이 한학선이 병법을 통달해도 전쟁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전쟁영웅의 약화'라고 보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는 전쟁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도 없는 인물이다. 王飛燕, 앞의 논문, 68면. 학선의 모습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전쟁을 통한 화려한 입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55) 남영로는 평생 벼슬에 오른 적은 없지만, 오히려 제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시의 부조리한 상황을 더 날카롭게 직시할 수 있었다. 주인공 양창곡은 책문(策問)을 통해 조정 대신과 자사 수령의 태도, 학문하는 선비의 자세, 풍속, 국방, 경제 등 당대 사회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자신의 현실적 처지와 관련이 있는 과거제의 모순과 폐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한다.

석의 신법에 대한 반대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역사에서 변화의 물결을 거 부하는 정서와 맞물리면서 정태운의 정치적 보수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는 가정 문제의 발단과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더 긴요한 역할을 한다.⁵⁷⁾ 이것은 작가가 정치에 대한 요구나 인식이 절실하거나 투철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은 공적 성취나 정치적 의지가 약화된 반면 가정 내적 문제, 특히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섬세한 정서를 보여주는 가정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⁵⁸⁾ 학선은 아내의 토로에 귀 기울이며, 젊은 시절 한언범은 가정

56) <난학몽>에서 신법당의 강력한 개혁정치는 패도정치로 받아들여지고 반면에 구법당의 수신을 중시하는 이념은 주자의 왕도론의 덕치주의와 통하는 점이 있다. 조선 후기 왕안석에 대한 포폄이 분분한 가운데 정태운은 철저하게 왕안석 부정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작품 설정은 19세기 조선의 정치 현실과 사회적 상황이 실리 위주, 그리고 정쟁 위주로 흘러가고 있던 당시 현실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개인 차원의 도덕 함양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작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광국, 앞의 논문, 61~67면 참조.

57) 정창권은 <난학몽>에서 정치적 갈등이 지니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작품 내적 측면에서, 정치적 갈등을 통해 가장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가정 내적 갈등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작가의식적 측면에서, 구법세력들의 행적들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정치이념, 즉 인정을 통한 요순지치의 세계 구현을 표출하는 기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작가는 극심한 당쟁의 모습을 드러내줌으로써 봉건체제의 한계상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정창권, 앞의 논문, 42~43면 참조) 정치적 배경이 <난학몽>의 주제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사 전개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갈등은 주로 가정 내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남성인물들 역시 정치적 역량보다는 가정적 면모를 통해 그 성격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작가의 관심사는 정치보다는 가정적 문제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기대(앞의 논문, 173면 참조) 역시 송대라는 작품 공간의 설정과 역사적 사건의 수용이 봉당적 상황에 의한 정치적 문제의 발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와 삶에 고난을 가하는 외적계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58) 분별력이 없고 무능한 가장이 처첩갈등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권위가 더 이상 여지가 없이 실추되고,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여 죽을 위기에 있던 아내를 구해낸다는 것은, 처첩갈등을 통해 부자관계축이 약화되고 부부관계축이 상대적으로

의 환란을 염려하여 재취를 거부한다. <난학몽>의 남성인물들은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상적 남성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적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한 계단 내려온 셈이다. 이념의 무력화와 남성적 세계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작가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욕망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해 준다.

그렇게 본다면 표방된 이념의 세계, 당위의 욕망은 작가의 현실적 욕망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와 신분이라는 타자가 부여한 욕망을 추구해야 하는 주체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⁵⁹⁾ 그 고독의 출구는 소설에 대한 탐닉과 창작으로 열려 있다. 그런데 당위의 세계가 무력해지고 소설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그의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난학몽>은 소설적 세계가 이념의 세계에 어느 정도 견인됨으로써, 현실적인 모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낸다.

여성세계에 대한 탐색이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학년의 부인이 될 꼭소저가 태어난 후 그 부모가 나눈 대화이다.

축부인이 스십 세가 지니여 일녀을 탄싱하니 티상 왈 옛적 티공의 말씀의 녀즈을 길으면 부비가 티과하다 흐시고 진번 왈 도적이 오녀 잇는 집의 아니 갖다 흐여스니 디چه 쏘은 큰 누라 부인의 년세 스십이 너므스니 남즈을 노아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승복, 앞의 책, 163~164면.

59) 주인공의 욕망은 간접화한 욕망이다. 한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초월은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연발생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욕망을 품는다.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21~24면 참조. 소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욕망하기보다 타자가 부여한 욕망을 추구한다.

도 귀할 게 업거든 하물며 녀즈리요 부인은 길이지 마소서 축씨 왈 군즈는 녀즈의 누만 드렸지 녀즈의 효는 못 드렸뇨 옛적의 제영이 부친의 형벌을 더신흐고 목난이 부친의 쓰음을 더신흐여스니 이것도 부모의 누오니가 더체 천지 음양이 비판하미 만물과 남녀가 싱겨스니 만약 녀즈을 누라 하고 골육을 업시오면 천명을 어긋미 아니오니가 티상이 소왈 니 말이 희롱이로다 하고 일음을 지여 왈 옥연이라 한다⁶⁰⁾

여성은 길러 보아도 집안의 누만 될 뿐이라는 콕태상의 말에 축부인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축부인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역할 인식은 ‘효’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난선의 상소 역시 여성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효’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⁶¹⁾ 『열녀전』 제6권 「변통전」 중 「제태창녀(齊太倉女)」 조에 수록된 ‘제영설화’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관비가 되려는 ‘제영(緹縈)’의 효심을 기리고 있다. 한언범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난선의 상소는 제영의 이야기와 크게 다

60) <난학몽> 국문본, 211~212면. 祝夫人至四十餘 誕一女 太常曰 昔太公有言 養女太多一費 陳蕃曰 盜不過五女之門 蓋女子者 父母之累也 卿年踰四十 雖生男子 不足佳 况無用之女子乎 卿其勿舉之 祝氏曰 但聞女子之累 而不聞女子之孝乎 昔緹縈贖父之刑 木蘭替爺而征 此亦爲父母之累歟 蓋自有天地陰陽之後 卽有萬物男女 若以女子爲累 自戕骨肉 豈非所謂逆天違道乎 太常笑曰 我言固戲耳 因名之曰 玉艷 (<난학몽> 한문본, 171~172면.)

61) 실제로 「변통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머니든, 아내든, 첩이든, 딸이든 각자의 처지에서 훌륭한 언변이나 재치를 구사하여 자식의, 남편의, 아버지의 곤경을 해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결국 여기에서 궁극적 능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회생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여성에게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가정적, 사회적 통념이다. “아들이 없어서 위급한 때를 당해도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아버지 순우공의 질책은 상고에 존재 하였던 원치 않는 여아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을 환기한다. 정재서, 『효녀 서사, 폭력과 성스러움 사이에서』, 정재서 엮음,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385면.

르지 않다. 난선과 축부인 역시 ‘계영’과 ‘목란(木蘭)’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서, 결국 딸은 효녀로 기능할 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여성의 욕망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이중적 의식을 노출시키고 있다. 고전소설에서 욕망하는 여성은 악인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소현성록>에서 소경의 누이인 교영은 사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양부인으로부터 독주를 받고 죽는다. 위녀는 과부이면서 전백중과 사통하였고, 성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이다. 위녀의 욕망 추구의 양상과 결과는 <사씨남정기>의 교체란과 상당히 유사한데 그녀들은 공히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다른 악녀와 달리 이 여성들에게는 개과(改過)조차 허용되지 않고 철저한 응징만이 가해진다. 이념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섬세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표기수단과 관련하여 <난학몽>은, 작품세계는 국문소설 세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한문본으로 창작되었다. 작가의 국문소설 독서 경험은 작품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은 국문으로 창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방외인문학이나 위향문학을 했던 문인들이 국문이 아닌 한문으로 문학을 했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문을 사용하는 지배층에 대한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사정이 어떠한 형식이 내용을 배반하고 있어 이 역시 작품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태운에게 소설 창작은 무엇이었을까.

문은 이가 몹시 놀라며 말하기를, “괴이하도다. 그대의 말은 황당하고 허무한 것이 아닌가?”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 말은 진실로 황당하다. 시경에 이르기를 ‘희학을 잘함이며 해롭지 않다’고 하였으니 나 역시 한때의 희학의

말을 한 것뿐인데 그대는 어찌 심히 괴이하다고 하는가?”⁶²⁾

발문에서 그는 ‘희학(戲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관습적인 표현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동시대 다른 한문장편 소설 작가들 중에는 창작에 대한 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규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쌍선기>의 후기⁶³⁾에는 ‘<쌍선기> 소설 이십 편을 지어 마침내 이름을 유전코자 하는’⁶⁴⁾ 작가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남아로 태어난 이상 도학덕행이나 부귀 공명으로 이름을 남겨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름을 남기는 차선의 방법으로 가사나 소설의 창작을 택하고 있다. 소설 창작이 도학덕행, 부귀공명과 맞먹는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⁶⁵⁾ <삼한습유>의 작가 김소행도 ‘작품 동기를 밝힌 저작기(誌作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작품을 지었다고 하며 소설 창작에 모든 역량을 기울였음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⁶⁶⁾

희학일 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한은규나 김소행과 달리 정태운에게

62) 問者愕然曰 怪哉 子之言 慌唐虛無也 予笑曰 吾言固慌唐耳 詩云 善戲謔兮 不爲虐兮 吾亦一時戲謔之言 子何深怪哉 (<난학몽> 한문본, 378~379면.)

63) <쌍선기> 후기는 본인에 의해 직접 쓰여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전달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은규를 가공의 인물로 여기거나 한은규라는 성명은 의미를 잃어버릴지라도 <쌍선기>의 창작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최지연, 앞의 논문, 8면 참조.

64) 일일은 선성이 그 제즈를 디혀여 왈 디져 스흘이 남아로 세상의 나미 반다시 혼 일흠을 오더 후세의 유전흠이 맞당헌지라 즈고로 도학덕행의 일흠도 있고 부귀공명의 쇼리도 있나니 니제 니 일직 성현의 주취를 잊지 못호고 쏘흔 현달의 마음이 업스니 일후의 맛참니 성명이 업슬지라 헛도이 세상의 나 헛도이 세상을 바릴진디 오히려 금슈와 초목만 갖지 못호리니 엇지 한심치 아니호리요 호고 먼저 귀봉가스 일빅 귀를 지여 스스로 그 마음을 징계호고 다시 여간문견과 저강스적을 보와 쌍선기 쇼설 이십 편을 지여 맛참니 일흠을 유전코자 호미로다 (<쌍선기> 후기)

65) 장효현, 앞의 책, 348~349면 참조.

66) 김경미(2000), 앞의 논문, 218면.

있어 소설 창작의 욕망은 여전히 감추고 싶고 온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소설 창작 당시의 개인적 환경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태운은 근기지방이 아닌 향촌에 있으면서 새 물결에서 소외되어 정치적·문화적 안목이 상대적으로 미숙했을 수 있다. 그리고 ‘대개의 한문장편소설 작가들이 인생의 말년에 완숙한 문학적 기량을 발휘하여 소설을 창작⁶⁷⁾했던 것과 달리, 정태운은 20대에 <난학몽>을 창작하였다.

<난학몽>의 서문에서 창작 당시 그의 처지와 내면을 읽을 수 있다.

내가 근래 초라한 집에 숨어서 문을 나가 사람과 만나지 않고 우러러 옛 사람의 성선지사(誠善之事)를 느끼고 굽어 지금의 공리(功利)만 쫓는 무리를 탄식하며 이 책을 저술하여 한때의 뜻을 부쳐 말할 따름이다.⁶⁸⁾

몰락 양반의 후손인 20대 청년은 칩거하며 소설을 탐독했다. 일신의 영달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소설을 창작하였다. 19세기 후반, 봉건사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새로운 물결이 도래하였지만 정태운의 의식수준이나 사회적 기반은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전망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20대 청년이다. 소설에 대한 탐닉과 창작은 그에게 하나의 출구가 되었을 것이다.⁶⁹⁾ 불우한 처지, 변화의

67) 이들은 상당한 문학을 거친 후, 홍우건이 <육미당기>를 읽고 이 작품이 서유영의 육십년 학문의 결과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은축해서 한 편의 소설을 지었던 것이다. 사실 이 점은 경탄할 만한 사항이다. 즉 우리는 한문장편소설을 대할 때, 이 작품이 작가의 완숙한 문학적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이기대, 앞의 논문, 38면.

68) 余近蟄蓬戶之下 出門無與人接 而仰感昔人誠善之事 俯嘆今世功利之輩 著述此書 以寓一時之意云爾 (<난학몽> 한문본, 12면.)

69) 정신분석학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예술가는 원래 병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창조적 작업에 임함으로써 병적 운명을 극복하고 현실로 되돌아오는 인간이다. 김시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향촌 지식인의 의식, 소설에 대한 탐닉, 그리고 20대라는 청춘, 이것이 <난학몽>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짐작건대 <난학몽>은 절망과 희망이 혼효된, 모색과 한계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텍스트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청년 정태운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난학몽>이 창작되고 번역되고 향유되었던 무렵, 고전소설시는 마감하지만 작가 정태운의 고민과 시도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작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난학몽>은 가정소설의 현실과 가문소설의 이상을 아우르면서 근대적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일상의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 <난학몽>에는 이념의 공허한 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절실한 토로도 담겨 있다. <난학몽>이 이념 이면에서 드러내는 모색과 한계를 통해, 고전소설사의 마감과 근대소설사의 출발이 미미하게나마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사이에 이루어진 창작·번역·유통은 고전소설 황혼기 소설 창작과 향유의 일단을 확인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난학몽>은 존재 자체로도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4. 맺음말

<난학몽>은 19세기 후반, 향촌 지식인인 정태운이 창작한 한문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표면에서는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19세기적 현실의 변이를 담아내고 있어 다분히 이중적인 텍스트이다. 본고에서는

『문학의 심리적 연구』, 김열규 외 지음,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2, 111면. 정태운의 소설 창작은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처지에서 오는 존재불안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욕망의 관점에서 작품에 나타난 이중성의 실상을 살피고, 나아가 이중성의 연원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난학몽>의 표면을 지배하는 첫 번째 욕망은 유가적 입신의 욕망이며, 이것은 타자에 의해 부여된 당위적 욕망이다. 이 욕망은 이념의 수호, 정치적 관심, 가문의 창달, 한문 표기로 드러난다. 두 번째 욕망은 창작에 대한 욕망이며 주체의 선택적 욕망이다. 이것은 여성주의의 확대, 경직된 가치 판단에 대한 반성, 일상성의 발견, 웃음을 통한 이념의 해체 시도 등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욕망은 단순히 양립하지 않으며, 작품 내부에서 충돌하고 갈등한다. 그럼으로써 두 욕망은 각각의 이면을 통해 모색과 한계를 드러낸다. 작가는 양반 남성의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아닌, 현실적 인간의 일상을 포착함으로써 사실성과 일상성에 다가가고 있다. 반면 여성의 역할을 효의 영역에 국한시키고 욕망하는 여성을 부정함으로써 여성 인식에 대한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난학몽>의 이 같은 이중성은 사대부 가문을 회복하여 안정을 누리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 소외 계층으로서 소설 창작을 통해 변화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 역학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는 19세기 후반, 격변하는 시대의 경험적 인식과, 공고함을 지키려는 관념적 사고가 충돌하는 시기의 필연적 산물이다. 가정 및 가문소설의 소재와 문제의식을 차용하고 심화시키면서 <난학몽>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가족관계,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난학몽>의 작품세계는 이념에 대한 경직화나 교조화로 재단될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은 <난학몽>에 내재해 있는, 이념에 가려진 당대적 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내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당대 독자들 역시 소극적으로 문면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작가의 고뇌와 한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비중이 적다고 해서 울림이 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도

하게 의미 부여를 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본고의 논지 전개와 맞지 않아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다. <난학몽>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축적된다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덧붙여 본고에서는 미처 살피지 못했지만, 20세기의 향유를 보여주는 국문본은 근대적 문체에 다가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이어진다면 <난학몽> 논의가 보다 풍부해지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鸞鶴夢> 한문본, 『정태운 전집』 1, 태학사, 1998.

<난학몽> 국문본, 『정태운 전집』 2, 태학사, 1998.

2. 단행본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2, 608면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128~149면.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163~164면.

임형택·최원식,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27~28면.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346~349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413면.

_____,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128~129면.

최원식, 『문학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1, 293면.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21~24면.

양리 베르그송, 정연복 옮김, 『웃음』, 세계사, 1992, 149~150면.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열녀전』, 예문서원, 1996, 21~31면.

3. 논문

김경미, 「<난학몽> 연구」, 『이화여대논문집』 제12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2, 593~619면.

_____,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216~232면.

김기동, 「古典小說 四題」, 『국어국문학』 54, 국어국문학회, 1974, 139~148면.

김시태, 「문학의 심리적 연구」, 김열규 외 지음,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2, 111면.

김탁환, 「사씨남정기계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1~89면.

王飛燕,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1~113면.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09면.

- 이병직,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1, 1~197면.
- 이승수, 『<옥루몽> 소고 1 -남녀지기론의 허실과 여성의 발견-』,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창간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 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정우봉, 『근대전환기 한 지식인의 운명』,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527면.
- 정재서, 『효녀 서사, 폭력과 성스러움 사이에서』, 정재서 엮음,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385면.
- 정종대, 『<난학몽>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75·7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1, 175~200면.
- 정창권, 『<난학몽>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1~78면.
- 조광국,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 -<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61~67면.
-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59면.
- 최지연, 『<쌍선기>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8~87면.

Abstract

The Double Meaning of the a Country Village Intellectual's Desires
Seen in *Nanhakmong*

Park, Eun-Jeong

Nanhakmong is a novel written in Chinese letters by Jeong-Taeun, an intellectual who lived in a country village in late 19th century. On the surface it says about ideology, but it implies the changes of reality under the surfac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true meaning and reason of the double meaning from the point of desire. The first desire was achieving fame inherited from Confucianism, which was a compulsory desire. This was reflected through protection of ideology, political interest, prosperity of his family, and the use of Chinese letters. The second desire was the desire to write, which was an optional desire. This was revealed through observation about women's society and seeking a writing method. These two desires do not coexist simply, but they collide and conflict in the novel. Each exposes its own limits through the respective hidden side. The poor reality of the writer, the consciousness of a country village intellectual who could not follow the social changes, the pursuit of a novel, and the age of 20s are all important keywords that help us understand the double meaning of *Nanhakmong* because this work was a result of the conflicts among them in the writer's inner world.

Key-words : *Nanhakmong*, Jeong-Taeun, country village intellectual, a novel written in Chinese letters, desire, double meaning

박은정

소속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주소 : (712-110) 경북 경산시 정평동 건영캐스빌 101-904

전화번호 : 010-6527-4483

전자우편 : blueye4483@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5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